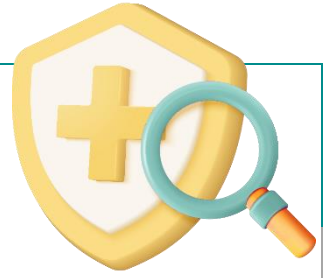


하나 Biweekly 제약/바이오(3월 중간)



제약바이오 Biweekly | 2026년 3월 18일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RA 유창근 changkeunyo@hanafn.com

슬슬 불어오는 학회의 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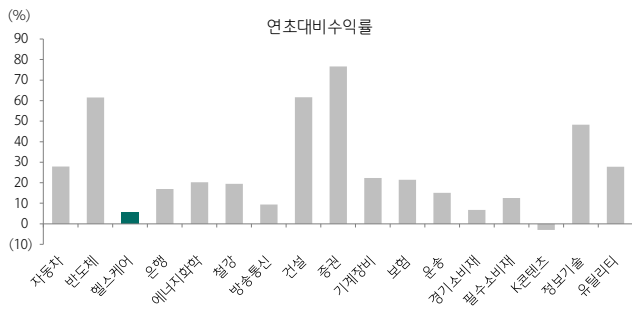
1) 2026년 3월 제약/바이오 산업 중간점검

- 4월 AACR 학회에 주목하기 시작할 때** 4월 AACR(미국종양학회)을 앞두고 학회에 참석하는 바이오텍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이다. 바이오텍 수익률이 유난히 부진한 때라 더 많은 관심이 몰리는 듯 하다. AACR은 5월 ASCO에 비해 초기 임상이나 전임상에 집중된 분위기이나, 상장 3년 내 초기 바이오텍은 파이프라인 수가 적어 이벤트가 많지 않고 파트너십의 개발 단계도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AACR 같은 학회도 큰 의미를 갖는다. 무게를 ASCO에 더 높게 싣고 있어서 AACR 참석은 크게 홍보하지 않는 기업도 있으니(ex. 리가캠바이오),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기업의 학회 참석 여부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파악된 바로는 리가캠바이오, 동아ST, 삼성에피소홀딩스, 보로노이, 알지노믹스, 큐리언트, 오름테라퓨틱, 와이바이오로직스, HLB이노베이션(자회사인 Verismo Therapeutics, Elevar Therapeutics) 등이 참석한다. 이 중 알지노믹스는 국내 사로는 유일하게 구두 발표 기회를 얻었으니 주목할 만하다. 초록의 제목과 저자가 3월17일 공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문은 4월17일 학회 개최일에 공개되니 참고하면 좋겠다.
- 가뭇에 더 부각된 액티브ETF 효과** 정부의 코스닥 부양 정책에 따라 많은 기대감을 이끌었던 “KoAct 코스닥액티브ETF”와 “TIME 코스닥액티브ETF”의 신규상장,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TIGER 기술이전바이오액티브 ETF”도 등장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 간의 수익률 격차가 커지는 경향이 보였다. 기업에 별다른 이슈가 없었음에도, 편입할 것으로 예상했던 종목이 실제 편입되지 않거나 비중이 낮아 주가가 크게 하락한 반면, 시가총액이 작은데 비중이 크게 확대된 종목은 25%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변동성이 컸다. 제약/바이오 섹터 내 이벤트가 부재하고 타 섹터 대비 수급이 적었던 탓에 액티브ETF의 효과가 유난히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종목과 비중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고, 최근 2-3월의 분위기가 이어진다면(곧 학회 시즌이라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현상은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럴 때일수록 보유한 종목의 펀더멘털이나 성장성을 점검해 뒤야, 잠깐 이동하는 수급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2) 2026년 3월 추천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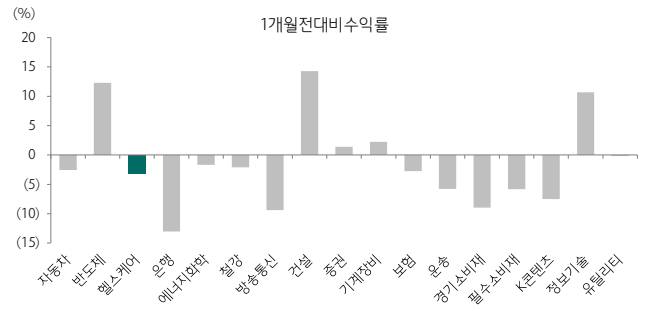
- 3월 코스피 Top pick(추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양바이오** 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6년에 매출 성장 가이드를 15~20% 제시했으나 주가가 부진하다. 아무래도 5공장 ramp-up에 대한 확신을 얻기를 바라는 듯하고, 6공장 착공 소식도 그 확신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Q26 실적발표 때 미국 록비 공장 인수 완료로 인한 연간 가이드스 상향도 기대한다. 2) 삼양바이오팜은 우리가 3월에 발간한 유전자치료제 인덱스에도 간단히 소개한 바와 같이 LNP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이다. 회사가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상장 후 본격적인 기업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판단하는데, LNP 플랫폼 파트너십 활동은 1월 JPMHC부터 최근 3월 East-West Biopharma Summit 등 꾸준히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3월23일 주주총회 후 본격적인 IR 활동이 개시되며 시장의 관심도 모일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 3월 코스닥 Top pick(변경): 알지노믹스, 인투셀** 1) 알지노믹스는 ‘25년 12월에 상장했지만, 비상장 시절부터 Lilly와 유전성난치치료제 개발 목적의 1.9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성과를 갖고 있다. 4월 AACR에서는 국내사 유일하게 임상1상 중간 결과(간암) 구두 발표 기회를 얻은 만큼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인투셀은 이번 4월 AACR에 파이프라인을 직접 공개하지 않지만, 에피스의 ADC 신약 SBE-303 전임상 데이터 공개로 OHPAS 링커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양사간의 본계약도 체결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기존에 추천 종목이었던 에스티팜과 올릭스는 긍정적인 전망은 유지하고, 3월 단기적인 모멘텀에서의 순위 교체일 뿐이니 참고하면 좋겠다.

도표 1. 섹터별 연초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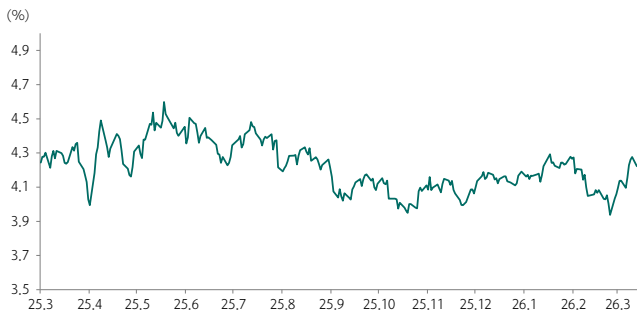
주: 3/17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2. 섹터별 1개월전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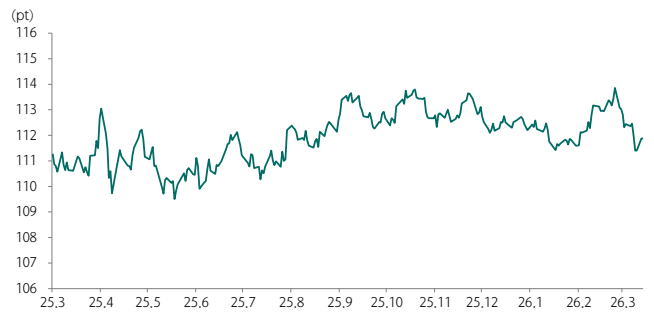
주: 3/17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3.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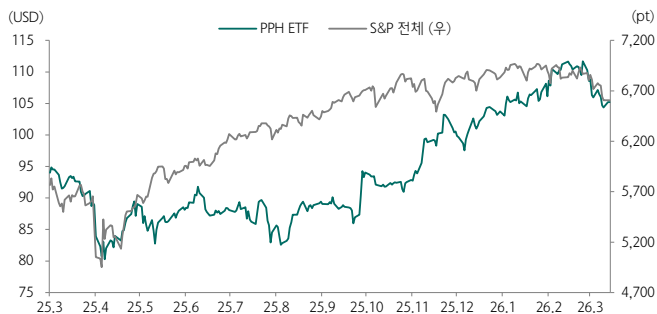
주: 3/16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4.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선물



주: 3/16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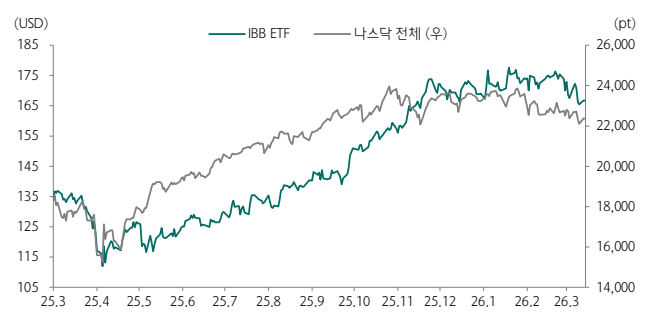
도표 5. VanEck Pharmaceutical ETF (PPH) 지수 (+S&P 전체 지수)



주: 3/16 종가 기준, 미국 상장 제약사 상위 25개 기업 선별 (수정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Eli Lilly(18.85%), Novartis(11.38%), MSD(9.70%), GSK(4.89%),
 BMS(4.88%), McKesson(4.87%), J&J(4.82%), Pfizer(4.77%), AstraZeneca(4.55%),
 Novo Nordisk(4.40%)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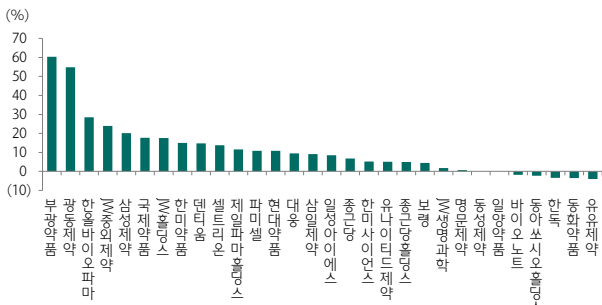
도표 6. iShares Biotech ETF (IBB) 지수 (+나스닥 전체 지수)



주: 3/16 종가 기준, Nasdaq Biotechnology Index (NBI) 추종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Gilead(9.40%), Vertex(9.10%), Amgen(8.92%),
 Regeneron(6.71%), Alnylam(3.66%), Insmed(2.66%), argenx SE(2.63%), Biogen(2.38%),
 Natera(2.32%), BeOne Medicines(1.94%)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7. 코스피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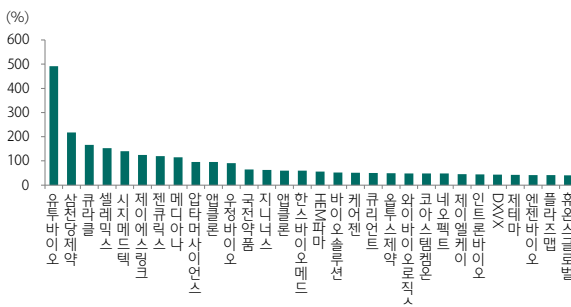
주: 3/17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9. 코스피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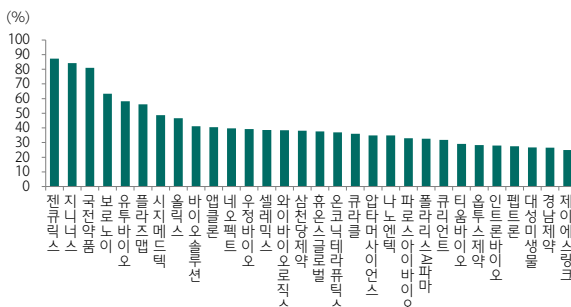
주: 3/17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11. 코스닥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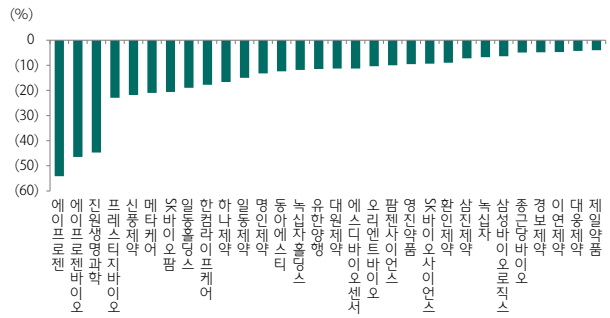
주: 3/17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13. 코스닥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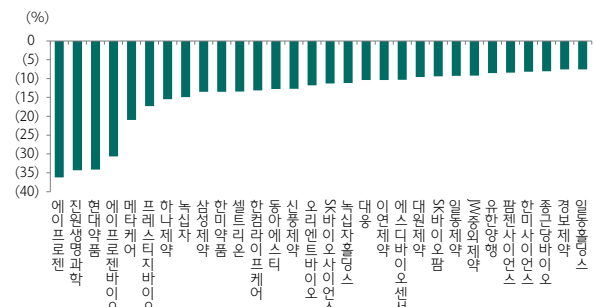
주: 3/17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8. 코스피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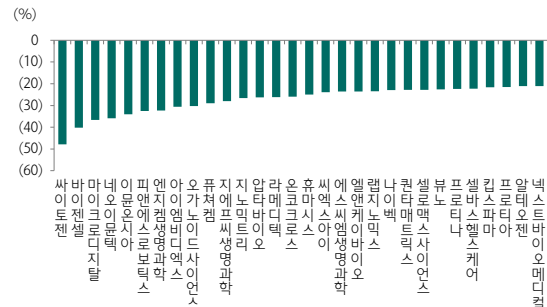
주: 3/17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10. 코스피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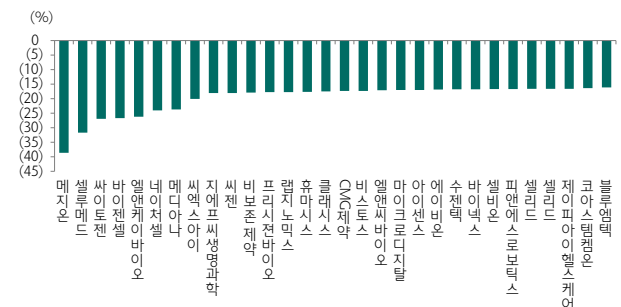
주: 3/17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12. 코스닥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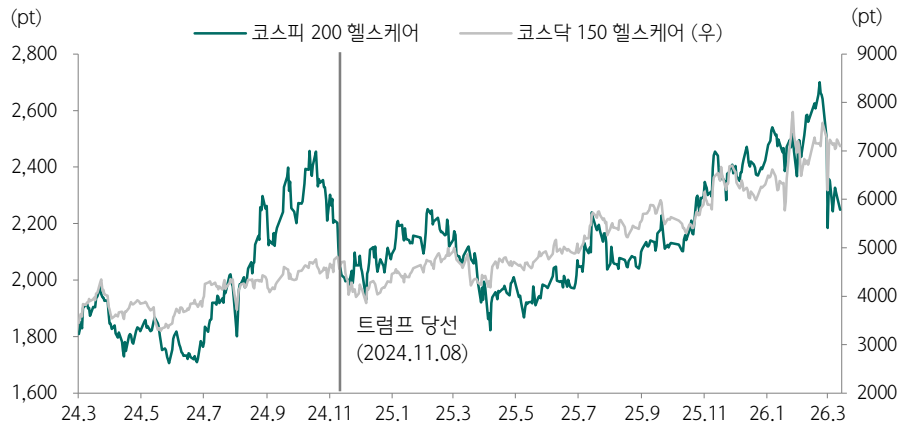
주: 3/17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14. 코스닥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주: 3/17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15. 트럼프 당선 전후 코스닥과 코스피 헬스케어 지수



주: 3/17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지난 2주 간 주요 이슈 및 관련 기업 코멘트 (Biweekly 발간 기준일 3/5 이후)

[3/5] 아이엠바이오로직스, 3월20일 코스닥 상장 예정 (공모가 2만6천원)

- 공모가 상단 2만6천원 달성(수요예측 경쟁률 839:1, 일반투자자 청약 경쟁률 1806:1), 상장 후 시가총액 3,842억원. 3월16일 상장한 카나프테라퓨틱스의 경우, 상장일 최고가 7만원을 경신하여 공모가 기준 최대 수익률 350%에 달함. 최근 바이오텍의 IPO 수익률은 매우 높은 편으로, 아이엠바이오로직스의 상장도 기대됨.
- 2024년 6월 미국 Navigator Medicines과 이중항체 신약 후보물질(IMB-101, IMB-102)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 Upfront \$20mn, 총 마일스톤 \$924.75mn, Royalty 별도. 2024년 8월 중국 화동제약과도 같은 후보물질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Upfront \$8mn, 총 마일스톤 \$307.5mn, 로열티 경상기술로 별도,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하였으나, 해당 계약의 해지 후 Navigator Medicines으로 계약을 이전하면서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로 지역 확대됨

[3/5] Alnylam, Tenaya Therapeutic와 유전성 심장 질환 표적 발굴을 위한 협약 체결

- 계약 조건은 선금금 \$10mn 및 마일스톤 최대 \$1.13bn, 2년 간 R&D 비용도 Alnylam이지원하는 조건. Tenaya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최대 15개의 타깃을 탐색할 예정.
- Tenaya는 심혈관, 근육, 대사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Cell&Gene Therapy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으로, AAV9 계열 유전자 치료제(발현), 세포재생 등의 modality로 질병에 접근 함.

[3/6] Roche-Zealand, Amylin 유사체 비만치료제인 petrelintide의 임상2상 결과 발표

- petrelintide의 임상2상(ZUPREME-1) 결과 요약: 42주 차, 493명 비만 성인 대상, 주1회 투여. 위약 보정 후 기준 9.0% 체중 감소(p-value<0.001). 이상 반응으로 인한 중단율은 max. 투여군에서 위약 대비 -0.1%로 사실상 중단 사례 없음. (모든 이유로 인한 중단율은 petrelintide 8.4%, 위약군 13.5%로 위약군이 더 높았음)
- 9주 간의 안전성 추적 관찰 결과를 포함한 최종 데이터는 최종 학회에서 발표될 것(6월 ADA 예상). 이를 기반으로 3상 설계가 결정될 것. Lilly의 Eloralintide는 48주 투약, max. 9mg 투여시 위약 대비 체중 19.7% 감소 (중단율 비공개)

[3/9] FDA CBER(Center for Biologics Evaluation and Research) 책임자 Vinay Prasad의 퇴임 결정

- 4월 말 사임할 예정. 최근 바이오텍 및 제약 업계와 전직 보건 당국자들 사이에서 FDA에 대한 비판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결정. 후임자는 아직 미정이나 퇴임 전까지는 임명할 예정. cell/gene therapy와 같은 희귀질환 치료제 승인에 보수적인 경향을 보여준 바 있는데, 한편 FDA는 26년 2월 23일 FDA가 희귀 유전질환 환자를 위한 생물학적 타당 기전 프레임워크 (Plausible Mechanism Framework)를 제시하며 소수의 환자 데이터만으로도 허가를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도 있음. 이 가이드라인은 유전자 편집과 함께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와 같은 RNA 기반 치료제들에 대해 논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렇듯 Prasad과 최근 동향을 고려하면 cell/gene therapy 개발사에는 우호적인 결정이라 판단.
- 주요 정책 중 바이오텍 우호적 정책: 신약 승인에 필요한 pivotal 임상시험 수를 2개에서 1개로 축소, 초고속 신약 심사 프로그램 도입하여 1~2개월 내 결정하는 루트 제공(Commissioner's National Priority Voucher)
- 제한적 정책: 코로나 백신의 65세 이상 또는 위험군으로 승인 제한, 희귀질환 치료제 규제를 강화하여 5개 이상의 cell/gene therapy 승인 거절

[3/9] Lilly, 한국 바이오텍과의 협력 강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텍 인큐베이팅 인프라 구축할 것

-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억 달러(약 7000억 원) 규모의 한국 투자 계획을 추진, 투자금의 97%(4억 8600만 달러)를 임상시험허브 구축에 투입할 계획임. 이 투자를 통해 국내 임상시험 기관과 연구자, 본사 연구진 간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임상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강화할 것. 투자 대상 질환은 당뇨병·중증 비만·알츠하이머병 등 글로벌 주요 질환 영역.
- Lilly는 2024년 영국에 투자(2억7900만 파운드로 약 5531억원)하여 바이오벤처 인큐베이팅 인프라인 릴리 게이트웨이 랩스(LGL) 구축, 같은 해 싱가포르에 투자(4200만 싱가포르 달러로 약 490억원)하여 디지털 헬스 혁신 허브 구축, 중국 베이징에도 허가와 임상 분석을 지원하는 센터 구축함.
- 이번 투자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협력하여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LGL을 설립할 것. LGL 창설 이래 입주사의 총투자 유지액은 30억달러(약 4조4121억원) 이상, 50개 이상의 신약 개발 프로그램이 가속화됨

[3/10] FDA, 바이오시밀러 개발 간소화 가이드라인 추가 공개

- 정당할 경우 불필요한 PK 시험을 간소화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함. 비용 50% 절감(약 \$20mn 수준까지 절감) 하고, 그에 따라 약가 절감도 전망. 이번 추가 발표는 2025년 10월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일부 불필요한 비교임상시험의 감소를 통해 1~3년의 기간과 \$24mn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근거함.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약제 대비 원가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수익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3/16] 지투지바이오, 삼성바이오에피스 및 에피스넥스랩과 장기지속형 비만치료제 개발할 것

- 삼성바이오에피스, 에피스넥스랩, 지투지바이오 간의 3자 계약. 1)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개발, 상업화 권리를 기술도입하여 제품화 개발 추진, 2) 에피스넥스랩은 지투지바이오와 장기지속형 약물전달기술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할 것. 계약 대상은 장기지속형의 Semaglutide(위고비 성분)를 포함한 후보물질 2종에 대한 독점적 개발권을 갖는데, 계약 규모는 비공개이나 에피스홀딩스 공시에 따르면 약 384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24년 기준 자기자본 또는 매출액의 2.5% 중 작은 금액 이상). 에피스홀딩스는 같은 날 지투지바이오가 발행하는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로도 투자함 (전환가액 116,900원, 전환청구시작일 2027년3월23일)
-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는데, 1) 이벤트 소멸로 인한 셀온, 2) Semaglutide에 대한 독점권을 체결하면서 글로벌 빅파마A(오리지널 개발사로 추정)와의 기술이전 가능성 상실 우려, 3)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의 정정보로 계약상 특이사항 중 투자위험요소가 부각된 점 등이 지적됨. 이 중 2)번 사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빅파마A와는 "Tirzepatide에 대항할 수 있는 신규 후보물질을 논의하는 단계로 넘어간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힘. Semaglutide는 물질 독점권이 만료된 상태로서 장기지속형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모두 개발에 달려드는 상황이므로, 빅파마A가 파이프라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Semaglutide가 아닌 Tirzepatide에 비견할 만 하면서 특허존속기간도 보장 받을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해야 하므로 회사의 설명이 타당하다는 판단임.

도표 16. 1H26 주요 학회 일정 (추가 확인 후 Biweekly로 업데이트 됨)

월	개최일	학회명	약자	개최지	비고
3월	03월 23일	Bio-Europe (바이오 파트너십 유럽 행사)	Bio-Europe 2026	Lisbon, Portugal	파트너링 행사이므로 다수 기업 참가
	03월 25일	ELCC (유럽 폐암학회)	European Lung Cancer Congress 2026	Copenhagen, Denmark	유한양행(예상)
4월	04월 10일	ASH (미국 혈액학회)	2026 Highlights of ASH® in AISA-PACIFIC	KUALA LUMPUR, MALAYSIA	참가 및 관련 기업 확인 후 추후 작성 예정
	04월 17일	AACR (미국 종양학회)	AACR ANNUAL MEETING 2026	San Diego, USA	동아ST, 셀트리온(예상), 에 피스, 리가캠바이오, 보로노 이, 알지노믹스, 큐리언트, 오름테리퓨틱, HLB이노베이 션(자회사) 등
	04월 28일	Bio-China (바이오 파트너십 중국 행사)	Bio-China 2026	Shanghai, China	파트너링 행사이므로 다수 기업 참가
5월	05월 02일	DDW (소화기계 학회)	Digestive Disease Week	Chicago, USA	HK이노엔
	05월 06일	ESMO breast cancer (유럽 유방암학회)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Breast Cancer 2026	Berlin, Germany	참가 및 관련 기업 확인 후 추후 작성 예정
	05월 27일	EASL (유럽 간학회)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Liver Congress 2026	Barcelona, Spain	한미약품(예상)
	05월 29일	ASCO (미국 임상종양학회)	2026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Chicago, IL	리가캠바이오(NextCure, Cstone 등), 한미약품(예상), 지아이이노베이션
6월	06월 05일	ADA (미국 당뇨병학회)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2026	New Orleans, LA	한미약품(예상), 동아ST
	06월 13일	ENDO (미국 내분비학회)	Endocrine Society ENDO 2026	Chicago, IL	참가 및 관련 기업 확인 후 추후 작성 예정
	06월 16일	EACR (유럽 암연구학회)	Europe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Rotterdam, Netherlands	참가 및 관련 기업 확인 후 추후 작성 예정
	06월 22일	Bio-USA (바이오 파트너십 미국 행사)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6	San Diego, USA	파트너링 행사이므로 다수 기업 참가

자료: 하나증권

도표 17. 국내 주요 제약사의 수출 비중, 주요 품목, 관련 지표

기업명	수출 비중	주요품목	관련 지표
SK바이오팜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엑스코프리(US): 총 매출 80% 	<p>[Xcopri 미국 처방수와 월별 변동률]</p> <p>*자료: Bloomberg</p>
삼성바이오로직스	9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직스: CDMO 에피스: BS 	<p>[로직스 연간 수주 증감액과 시가총액(공시일 기준)]</p> <p>*자료: Dart, 하나증권</p>
셀트리온	8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짐펜트라 매출액 : 4Q24 280억 : 1Q25 134억 : 2Q25 226억 : 3Q25 281억 : 4Q25 581억 	<p>짐펜트라 TRx 수</p> <p>* 자료: Bloomberg</p>
녹십자	2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알리글로 부: 알부민 등 	<p>[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글로벌 수출 동향]</p> <p>* 자료: Trass (국내지역 : 충북 청주시/ 품목 : [300212]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 높은 중량과 높은 금액이 일치할 때 알리글로 향으로 해석</p>

<p>유한양행</p> <p>2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료 수익, 원료 등 	<p>해외사업부문의 매출은 유한화학 원료 생산 매출 및 그 원료의 수출 그 외 라이선스 수익 [Rybrevant, Lazcluze 월 처방수 (좌,우: TRx)]</p> <p>[Rybrevant, Lazcluze 월 신규처방수 (좌,우: NRx)]</p>
<p>에스티팜</p> <p>95.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API) 매출 비중 : 수출 매출 78.3% 	<p>[분기별 누적 수주잔고 및 시가총액] *그래프는 공시 기준 데이터로, 3/17 추정 5,500억원</p>
<p>대웅제약</p> <p>16.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보타 수출액 : 총 수출 84% Evolus 가이드던스 : -14% 하향 	<p>[화성시(향남 나보타 공장 소재) 미국향 특신 수출 동향]</p> <p>*국내 전체 미국향 특신 전체 수출량 중, 화성시 수출량이 매일 90% 전후반 유지 중 * 자료: Trass (품목: [3002491000] 독소, 독소이드(toxoid), 크립토크소(cryptotoxin), 항독소(anti-toxin)/ 국내지역 : 경기 화성시/ 국가 : 미국)</p>

주: 수출 비중은 3Q25 기준
자료: 각 그래프에 표시, 그 외 Dart, 하나증권

도표 18. 국내 주요 제약사 실적 컨센서스(2026.03.17 기준, 다음 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 모두 상승시 음영 표시)

(단위: 십억원)

기업명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1Q25	4Q25	1Q26F	2025	2026F	1Q25	4Q25	1Q26F	2025	2026F
셀트리온	46,210	842	1,330.2	1,135.1	4,162.5	5,236.7	149.4	475.2	342.3	1,168.5	1,692.2
삼성바이오로직스 (TP: 2,050,000원)	72,584	1,298.3	308.6	1,357.9 (F.1,227.8)	4,557.0	5,374.3 (F.5,466.1)	486.7	378.1	645.8 (F.560.6)	2,069.2	2,400.8 (F.2,537.5)
삼성에피스홀딩스 (TP: 610,000원)	12,815	nr	251.7	474.1 (F.473.1)	251.7	1,910.0 (F.1,906.0)	nr	-63.6	105.5 (F.56.4)	-63.6	408.2 (F.203.4)
유한양행	7,758	491.6	546.1	553.3	2,186.6	2,398.1	6.4	26.1	32.4	104.4	150.4
녹십자	1,747	383.8	497.8	440.4	1,991.3	2,152.6	8.0	4.6	12.7	69.2	95.6
한미약품 (TP: 640,000원)	6,406	391.0	433.0	413.9 (F. 410.2)	1,547.5	1,675.8 (F. 1,704.7)	59.0	83.3	68.0 (F.69.3)	257.8	279.8 (F. 283.0)
대웅제약	1,861	356.5	397.1	392.3	1,570.9	1,703.3	38.7	43.3	47.2	196.8	227.7
HK이노엔	1,431	247.4	291.9	270.0	1,063.2	1,128.7	25.4	40.1	29.2	110.9	126.3
종근당	1,197	401.0	426.8	441.4	1,692.4	1,846.1	12.5	23.5	16.5	80.6	82.0
휴온스글로벌	942	199.1	224.5	nr	847.5	nr	25.6	19.5	nr	90.6	nr
동아에스티	407	182.1	216.8	194.2	808.8	827.8	-4.8	-2.7	7.3	0.6	33.6
보령	801	240.6	245.4	nr	1,017.4	nr	10.9	-0.7	nr	65.1	nr
SK바이오팜 (TP: 160,000원)	7,487	144.4	194.4	207.6 (F. 215.5)	706.7	918.6 (F. 939.8)	25.7	46.3	69.7 (F. 83.3)	203.9	326.2 (F. 373.4)
동국제약	801	223.7	nr	249.7	nr	1,032.0	25.3	nr	28.3	nr	106.6
에스티팜	3,222	52.4	129.1	73.2	331.7	403.8	1.0	26.5	6.1	55.2	70.5
셀트리온제약	2,643	112.5	154.4	nr	536.4	nr	10.7	13.7	nr	56.1	nr
JW중외제약	737	185.2	198.4	nr	774.8	nr	22.0	14.6	nr	93.6	nr
일동제약	1,019	136.0	147.0	nr	566.9	nr	4.2	7.9	nr	19.5	nr
대원제약	243	157.8	160.0	169.9	605.6	649.2	9.4	5.8	9.6	3.4	19.3
제일약품	217	163.0	130.9	nr	566.3	nr	5.7	0.5	nr	20.7	nr
삼천당제약	17,124	50.6	66.3	nr	231.8	235.0	0.7	5.4	nr	8.5	45.0
바이넥스	409	39.8	38.8	nr	168.5	214.0	0.5	-6.3	nr	-4.5	17.0

주1: 4Q25→1Q26F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된 종목은 녹색 음영 표시

주2: Coverage 종목의 Forecasting은 "F."으로 표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4Q25 실적 발표하여, 다음 분기 예상 실적을 반영한 리포트 발간 예정

주3: 종목 선정: 2025년 9월 기준 자산총액 상위 10조 이상 +a(임의) 중 선정 (제외 종목: 지주사, 60% 이상의 매출이 의료/미용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인 종목 등)

자료: QuantWise, FnGuide, 하나증권

Coverage 및 관심 종목 월간 코멘트

삼성바이오로직스 (TP 2,050,000원, 유지): CAPA 확장 소식을 기다리며 + 1Q내 록빌 공장 인수 마무리 효과 확인

- '26년 가이드스 제시: 매출액 +15~20% (원/달러 환율 1,400원), 미국 록빌 공장 인수에 따른 매출 기여분은 미반영. 이익 가이드스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OPM 50% 재현 여부는 1Q26 내 미국 록빌 시설 인수 후 약 500명의 미국 임직원 수 증가로 인한 인력 비용, 설비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단, 1Q 내 록빌 공장 인수 마무리됨에 따라 1Q26 실적 발표 때 가이드스 조정 기대.
- 부진한 주가는 대규모 CAPA 확장 소식이 부재한 중에 5공장의 ramp-up 속도에 대한 불안함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판단. 6공장 증축 또는 미국 공장 규모 확대 투자 등 CAPA 확장 소식을 기대함. 27년 내 6공장 가동에 대한 계획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므로 늦어도 상반기 내 착공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삼성에피소홀딩스 (TP 610,000원, 유지): MSCI 편입, 1Q26 실적이 추가 상승 동력이 될 것 + 장기지속형 비만치료제 추가

- '26년 가이드스 제시: 에피스 별도 기준 매출액 +10% 이상, OPM 20% 이상 유지. 서프라이즈는 유럽 직판 구조의 시장 진입 속도에 달려 있음.
- 인투셀과 공동개발한 ADC 신약 SBE-303은 4월 AACR에서 우수성을 발표할 예정. FDA IND 승인됨에 따라 26년 내 본격적으로 임상1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고, 환자 모집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연말 ENMSO 등에서 중간 결과 발표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에피소홀딩스는 연간 1개 이상의 신약 파이프라인의 IND 신청을 목표로 하나, '26년은 없을 것으로 예상.
- 지투지바이오와의 공동개발계약으로 Semaglutide를 포함한 2개의 후보물질에 대한 장기지속형 비만치료제 파이프라인 추가됨.

알테오젠 (TP 580,000원, 유지): 상반기 내 추가 기술이전 가능성 높음 + J-code 효과 주목

- 분쟁 현황: 할로자임의 특허무효심판(PGR)은 6월2일 내 심결이 나오는 일정만 남음. 14개의 PGR은 예상대로 최초의 PGR과 같은 스토리로 흘러가는 중. 패밀리 특허이므로 결과는 동일할 것. 독일 특허무효예비판결 2-3월 예상하고 그에 따라 가처분 명령 취소 기대. 영국은 STAY, 네덜란드 및 프랑스는 무효 심판 청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제조방법에 대한 미국 IPR 청구는 중요한 특허가 아니므로 집중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
- 상반기에 12월 옵션 계약한 건의 분계약, 글로벌 빅파마와의 대형 딜, 기존 파트너십들의 임상 진입으로 인한 마일스톤 수령 등의 이벤트가 대기 중이므로 매수하기 적절한 시점이라는 판단. Keytruda Qlex의 J-Code 효과(보험청구가능)는 4월부터 효력 발생함. 미국 내 처방수는 5월 중순 경 확인 가능할 것(블룸버그 데이터 업데이트 일)

한미약품 (TP 640,000원, 상향): 상반기는 실적과 MASH가 주요 이벤트일 것 + 거버넌스 이슈

- 회사가 기술이전 1건 이상이라는 가이드스를 제시하여 기술이전 기대감이 높아짐.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은 삼중작용제 HM15275와 근육강화제 MH17321로 보고 있고, 최근 FDA로부터 BTD 지정 받은 선천성 고인슐린중후군 치료제 에페글루카곤도 빅파마의 관심을 받을 만 하다는 판단. 다만 우리는 이중 근육강화제 MH17321의 매력도가 높고, 삼중작용제 HM15275와 병용하여 전임상 연구를 해왔던 것을 고려해 기술이전은 MH17321의 Human data를 확인할 수 있는 3분기에 패키지 딜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함. 별개로 기술이전한다면 상반기, 패키지가 되면 3분기에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 느긋한 마음으로 상반기는 기술이전 보다는 실적과 5월 MASH 임상2b상 결과에 집중할 것을 제안.
- 에페글레나타이드(국내 비만치료제 신약)는 12월17일 국내 품목허가 신청하여 26년 하반기 시판허가 획득 및 출시 예정되어 있고, 멕시코 등 해외 진출 준비 중. 3분기부터 비만치료제 출시에 따른 매출 증가도 기대. 단, 최근 다시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영인 거버넌스 이슈로 기대감 대비 추가 업사이드가 제한된 분위기.

SK바이오팜 (TP 160,000원, 유지): Xenon의 아제투칼너 임상3상 데이터 공개

- '26년 가이드스: 엑스코프리 US 550mn~580mn\$(YoY+29%, 환율 1395원/달러), 기타매출 1,100억원(YoY+44%). 올해는 4Q25에 나가는 물량을 조절하여 1Q26에도 실적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Xenon의 아제투칼너(XEN1101) P3 결과 공개로 주가 하락. 명확한 차이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나, 엑스코프리과 메커니즘이 상이(Na+ channel block 및 GABA 수용체 활성화 vs. KV7 K+ Channel 개방)하므로 시장에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전망함.
- 세노바메이트 시장 확대 중으로, 국내 11월 초, 중국 12월 시판 허가 획득. 일본은 9월 IND 신청했으나, 26년 하반기에 시판 허가 받을 것. 26년-27년 꾸준히 매출 상승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음. 다만 12월 첫번째 RLT 파이프라인 임상 1상 IND 승인과 함께 방사선 의약품 신약 파이프라인이 대거 개발에 돌입하여 연간 영업이익 감소의 불안감도 높아짐. 현재 세노바메이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2nd Product 도입은 필요한 상태이고 회사는 타겟을 더 넓혀 적절한 제품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리가캠바이오 (TP 220,000원, 유지): 학회 시즌이 다가온다!

- 회사는 추가 L/O를 위해 ADC Bio Better 전략과 Target Exclusive Package Deal(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되, 타겟에 대한 독점 계약)로 파트너십을 시도하는 중. 최근 1/7 ASCO G에서 LCB14(KSUDA, HER2)의 식도암 환자 10명 중 ORR 50% 확인하여 용량 확장 단계에 'HER2+ 식도암' 코호트 추가할 계획. '25년 10월 ESMO에서 Enhertu 불응성 환자에 대한 ORR 75% 효능도 확인함. 해당 임상1상은 '26년 9월 종료 예정 (NCT05872295).
- '26년은 Ono(LCB97), SOTIO, IKSUDA의 신규 임상1상 진입에 따른 마일스톤 유입 가능성 높음. Ono의 경우 올해 만 두 차례 마일스톤을 수령하여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임을 확인함(임상1상 진입에 따른 마일스톤은 아직 남아 있음). 4월 AACR에서 자체 개발 중인 신규 파이프라인 공개, 5월 ASCO에서 IKSUDA, Cstone(LCB71, ROR1-pPBD)의 특정 Cohort에 대한 임상1상 중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함.

디앤디파마텍 (Not Rated, 관심종목):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가져볼 만 하다 + CB 1,500억원 모집 분위기

- MASH 치료제는 궁극적으로 Fibrosis 개선을 보여줘야 하고, Top line 발표는 26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음. 투약은 종료하였고, Top line 발표 시기는 5월경.
- Pfizer가 4Q25 Earning Call에서 Met-097가 아닌 Met-224a에 관심을 가지며 경구용 플랫폼 모멘텀 부활 가능성 높아짐. 또한 NLY02 (퇴행성 신경질환 타깃, RIPK2 선택적 저해), Lilly가 관심 보이는 RLT 개발사 Z-alpha의 지분 보유(15%)하고 있으니 참고할 것. NLY02는 공동개발사 퍼스트바이오가 내년 1분기 기술성평가 확보하고 5~6월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하는 계획인 만큼, 상반기에 L/O 소식이 있을 가능성도 높다는 판단.
- 현재 전환사채 1,500억원을 모집 중인 것으로 보임(회사의 공식적인 발표X). 참고로 최근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한 바이오텍의 경우 주가는 오히려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음. 조달 과정에서 회사의 성장성이 홍보되는 효과, 자금 확보로 R&D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

지아이노베이션 (Not Rated): 5월 ASCO GI-101/101a, 상반기 내 102 단독 투여 임상도 발표할 것

- GI-102: ①SC 단독 투여 1b상, ②GI-102+키트루다 투약 2a상, ③GI-102+엔허투 투약 2a상에 대해 '26년 내 임상 발표 예상. ①번 단독 투여 1b상의 경우 올해 상반기 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환자 50명 예상), 임상 종료 후 Top line 확인되는 대로 공시가 있을 것이니 학회 일정과 무관하게 R&D 타임라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 GI-101/101a: 5월 ASCO에서 발표할 것. 발표할 데이터는 키트루다 병용 임상1상에 관한 것으로, 현재 임상2상을 준비 중 (방광암, 신장암, 폐암, 대장암)
- 유한양행에 기술이전된 GI-301의 임상2상(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 150명 대상, 12주간 약물군 및 위약군으로 투약하고, 한국/유럽/아시아 국가에서 다국가 임상 진행 계획)도 한국/중국은 IND 승인되어 '26년 중 임상 진행될 것으로 예상. 기술이전도 꾸준히 시도될 것으로 보임.

인투셀 (Not Rated): 본계약 또는 마일스톤 수령 이벤트 대기 중 (3/26 주주총회)

- 에피스홀딩스가 Nxt3를 적용한 ADC를 방광암에 대해 임상1상을 진행하기 위한 IND를 12월2일 FDA 신청하여 승인됨. OHPAS 링커와 공동개발한 Nxt3 적용되었음에도 옵션 행사에 따른 본계약(또는 프로덕트 딜)을 체결이나 마일스톤 등 이벤트가 없는 것이 추가 부진한 이유로 판단. 3월26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본계약 체결 가능성이 있으니 예외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 자체 개발 중인 신약에 대해 국내와 미국에 임상1상 IND도 승인된 상태로, Duocarmycin을 적용하여 Nxt3 없이 OPHAS 링커의 기술력을 입증할 전망이니 주목할 가치가 높음. 에피스와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도 4월 AACR에서 전임상 데이터 발표 예정이라, OHPAS 링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을 기대. 회사는 새로 꾸려진 BD팀을 통해 Bio-Europe, Bio-China, Bio-USA 등 상반기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하여 꾸준히 기술이전을 시도할 것.

셀비온 (Not Rated): ASCO-GU 이후 셀온, 키트루다 병용 첫 환자 투약은 3월로 연기

- 임상2상 단독 투여 CSR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12월30일 예정대로 국내 식약처에 조건부허가신청 완료. 26년 하반기 국내 출시를 기대함 (현재 플루빅토 국내환자 1회 투여 3천만원, 임상 기준 최대 6회 투여).
- 키트루다 병용 임상(국내) 1상 IND 승인 받아 3월 내 첫 투약 예상. mCRPC 환자 30명 대상 pre-Taxane 대상 임상하여 2L 진입 노릴 것. 임상2상 성과가 매우 우수하고, 키트루다라는 신뢰도 높은 약물과의 병용 투약하므로 빠르게 환자 모집하여 '26년 하반기 내 임상1상 중간 결과 발표까지 기대함. 중간 결과 성과에 따른 MSD로의 기술이전도 기대. 키트루다는 연구자 임상에서 플루빅토와 병용 투여 시 mOS를 12.9개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P2에서 플루빅토 대비 낮은 혈구 독성을 보였기 때문에 키트루다의 효능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

펩트론 (Not Rated): 본계약을 기다리며 (3/26 주주총회)

- 터제파타이드(추정) 제형에 대한 본계약 진행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고, 추가 물질 제형화를 포함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음. 지금까지의 소통 상황으로 보아 긍정적으로 조금 더 기다려 볼 것을 제안함. 3월26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벤트 기대감이 추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
- 그 외 루프윈의 국내 시판 허가에 기반한 시장 확대를 시도하는 중.

인벤티지랩 (Not Rated): BI 추가 계약에 따른 제형 전달, 그에 따른 본계약 기대 + 985억원 자금 조달 성공

- 인벤티지랩 또한 다양한 글로벌 빅파마 또는 지역 파마와 공동개발/기술이전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임. 베링거인겔하임에 전달받은 후보물질에 대한 첫 번째 제형을 개발하여 전달하였고 11월에는 그에 따른 추가 물질 개발 계약을 체결함. 그 추가 물질에 대한 제형을 1Q26 내 전달하고, 2Q26 내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대하는 타임라인대로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상반기 본계약 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음.
- 최근 글로벌 빅파마 및 다수의 Local pharma(ex. 자체 개발 펩타이드계 약물을 보유하는 또는 Semaglutide 이용하려는 기업)도 공동개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1H26 내 계약(공동개발 예상) 체결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985억원 자금 조달 성공적으로 종료(발행일 2026년3월16일). 당초 계획 보다 오버부킹. CPS 527억원, CB 373억원, BW 85억원.

지투지바이오 (Not Rated): 에피스와 공동개발계약 체결로 높아진 기대감

- 최근 1,500억원 규모의 CPS/CB 자금 조달에 성공(발행일 2026년3월23일). CPS 750억원, CB 750억원. 삼성에피스홀딩스의 CB 200억원 투자도 이어짐.
- 삼성바이오에피스, 에피스넥스랩, 지투지바이오 간의 3자 계약 체결. 1)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개발, 상업화 권리를 기술도입하여 제품화 개발 추진, 2) 에피스넥스랩은 지투지바이오와 장기지속형 약물전달기술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할 것. 계약 대상은 장기지속형의 Semaglutide(위고비 성분)를 포함한 후보물질 2종에 대한 독점적 개발권을 갖는데, 계약 규모는 비공개이나 에피스홀딩스 공시에 따르면 약 384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24년 기준 자기자본 또는 매출액의 2.5% 중 작은 금액 이상).

에스티팜 (TP 210,000원, 3월 신규): 시장이 성장하는데 따라 올라갈 수밖에

- 고객사의 상업화 물량이 누적되며 '26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증가 및 수익성 개선이 전망됨. 1월 말 수주는 Inois의 올레자르센, 3월16일자 수주는 Novartis의 렉비오일 것으로 추정함. 기존 고객사들의 상업화 물량이 차질 없이 신규 수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함. 2개의 추가 수주로 약 5,500억원 수준의 수주잔고와 쌓여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 경우 분기별 수주 잔고에서 역대 최고 수준임.
- 올해 하반기 고객사 2곳(동맥경화증, 만성B형간염 치료제)의 임상3상 탐라인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동시에 수주가 들어오지 않아도 추가 업사이드로 작용할 수 있음. 탐라인이 성공적이라면 '27년 상업화 물량 수주를 기대할 수 있으니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HIV 신약 후보물질인 Pirmitegravir의 임상2a상 최종 결과 발표도 3Q26에 있을 것으로 예상.

올릭스 (Not Rated, 3월 신규): 우리 곁에 가장 가까운 유전자 치료제 개발 중 (주주총회 3/26)

- Lilly와 MASH/비만 치료제 개발, 로레알과 피부 및 모발 관련한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그에 따른 추가 성과를 기대(Lilly의 옵션행사, 로레알의 L/O, 추가 투자 등). 시장 규모가 큰 일반 질환을 타겟하고 있으므로, 개발 단계 상승 및 추가 옵션 행사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력은 매우 크다는 판단.
- 최근 지방세포를 직접 타겟하는 OLX501A를 선보였고, 뇌질환 진출을 위한 BBB셔를 개발사인 Key2Brain 및 Vect-Horus와 물질이전평가계약을 체결하여 파이프라인은 더욱 확장되고 그에 따라 추가 기술이전도 기대함.

알지노믹스 (Not Rated, 3월 신규): 트렌드를 선도하는 알짜배기 새내기 바이오텍

- 완전히 새로운 modality로 valuation을 위한 적절한 Peer가 없으므로, 기술이전계약 가치로 기업 가치가 매겨진 상태. Lilly의 최근 동향을 보아 유전자치료제 및 청력 상실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Lilly와의 협업 속도는 타 개발사와 비교하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함. 최근 R&D 비용 지원있었음.
- 4월 AACR에서 간암 치료제 RZ001의 임상1상 중간 결과를 구두 발표할 예정. 구두 발표는 임상적으로 유의미하고 학계에서 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안전성과 일부 환자에서의 약효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중간 발표이니, 플랫폼의 안정성 및 메커니즘에 따르는 바이오마커 등 Human data 확보에 초점을 맞출 것. 발표 내용은 4월17일 학회 당일에 이르러서야 공개됨.

도표 19. Coverage 및 관심 종목의 1Q26-2Q26이벤트(2026.03.17 증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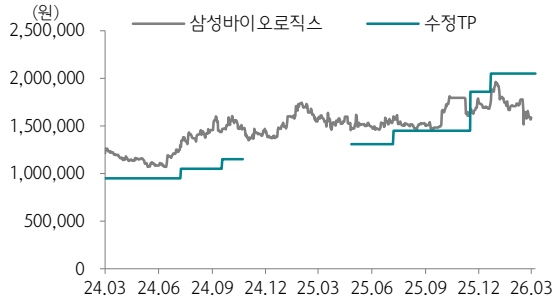
(단위: 원)

기업명	TP	주가	상승 여력	1Q26	2Q26	비고
삼성바이오로직스	2,050,000	1,587,000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공장 증축 발표 기대 주주총회 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 초 1Q26 예상실적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H26 내 6공장 증축 소식 기대
삼성에피소홀딩스	610,000	525,000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주총회 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 AACR 참석 5월 초 1Q26 실적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회사 확대, 학회 발표 등 주목
알테오젠	580,000	354,500	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월 독일 가처분신청 예비 판결 주주총회 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PGR 최종 심결 확인(5월 말-6월 2일) 12월 옵션 계약 건의 본계약 체결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H26 내 추가 L/O 2건 이상 체결 기대 미국 PGR 일정은 최종 심결 일정만 남음 코스피 이전 상장은 3Q말~4Q 전망 신규 파트너사 등장 예상 (10개 이상 논의 중)
한미약품	640,000	520,000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주총회 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 초 1Q26 예상실적발표 5월 에피노페그듀타이드 (MASH) P2b Top line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4Q25 실적 상승 전망 연내 1개 이상 기술이전 가이던스 제시함
SK바이오팜	160000	98,900	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주총회 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초 1Q26 실적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엑스코프리의 4Q도 매출 상승 이어갈 전망 2nd Product 도입 기대
리가캠바이오	220,000	210,00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년 이월된 L/O 1건 이상 체결 기대 주주총회 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 AACR 참석 5월 ASCO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Bio Better, Package Deal의 경우 언젠든 L/O 모멘텀 보유 각 파트너사의 개별적 R&D 성과 공개 기대 임상 단계 상승 예정 파트너(마일스톤 수령): Ono(LCB97), SOTIO, IKSUDA
에스티팜	210,000	153,400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주총회 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6/30 고객사 (고중성지방혈증) FDA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반기 고객사 2곳 3상 타라인 발표 기대(동맥경화증, 만성B형간염)
디앤디파마텍	NR	83,5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주총회 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DD01(MASH) P2 Top line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Pfizer와의 협력 관련 소식 기대
지아이이노베이션	NR	14,4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주총회 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ASCO GI-101a P1(키트루다 병용) 공개 GI-102 SC제형(단독) P1b 결과 발표 (1H26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 AACR GI-101a 공개 이벤트는 5월 ASCO로 변경 GI-102: SC제형(단독) P1b, 키트루다 병용 P1/2, Enhertu 병용 P2a 진행 중 (단독은 1H26, 그 외 '26년 내 데이터 확인 예상) GI 301: 유한양행 공동개발
올릭스	NR	186,6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트너십의 추가 투자, 신규 L/O 기대 주주총회 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트너십의 추가 투자, 신규 L/O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트너십의 추가 투자: 릴리, 로레알, 한소제약
알지노믹스	NR	185,8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L/O 기대 주주총회 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 AACR 참석 신규 L/O 기대 	
인투셀	NR	49,0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계약/마일스톤 수령 등 주주총회 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 AACR(에피소스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회 발표 보다는 파트너십 행사를 통한 L/O 논의 (Bio-USA/ Europe/ China 등)에 집중할 것
셀비온	NR	27,6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키트루다 병용 투약 시작 주주총회 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키트루다 병용 투여에 따른 기술이전 기대감 보유 (P1 중간결과 확인이 가능한 2H26 이후 예상)
펩트론	NR	311,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ly와의 본계약 기대 주주총회 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ly와의 본계약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ly와의 평가기간은 정정된 공시 상 최대 '26년 9월로 연기됨
인벤티지랩	NR	87,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건 이상의 공동개발 또는 L/O B에 제형 전달 예정 주주총회 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공동개발 또는 L/O B의 제형에 대한 피드백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H26 내 글로벌 빅파마 또는 지역 파마로 1건 이상 기대
지투지바이오	NR	93,5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주총회 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공동개발 또는 L/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공동개발계약 기대

주: 회색 음영은 3월 신규 커버리지 종목
자료: 하나증권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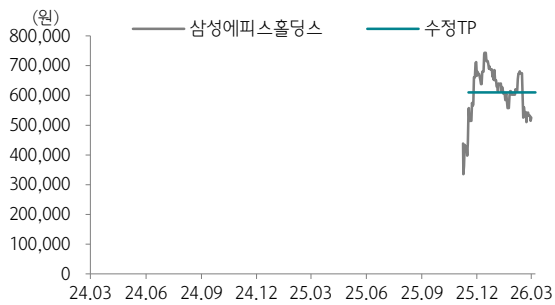
삼성바이오로직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7	BUY	2,050,000		
25.12.3	BUY	1,860,000	-8.44%	-3.76%
25.7.24	BUY	1,450,000	10.83%	1.09%
25.5.13	BUY	1,310,000	15.45%	11.45%
25.4.16	담당자 변경		-	-
24.10.4	BUY	1,150,000	32.34%	17.23%
24.7.25	BUY	1,050,000	35.65%	24.75%
23.10.5	BUY	950,000	19.39%	8.13%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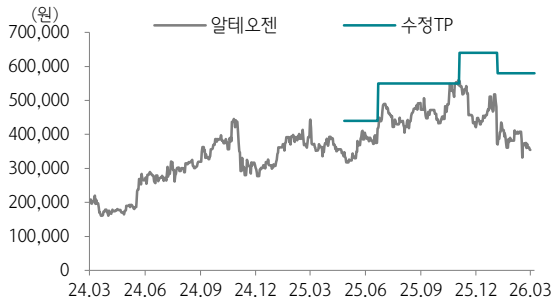
삼성에피소홀딩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2.9	Neutral	610,000		
25.12.3	BUY	610,000	5.08%	21.80%
25.11.28	Not Rated	-	-	-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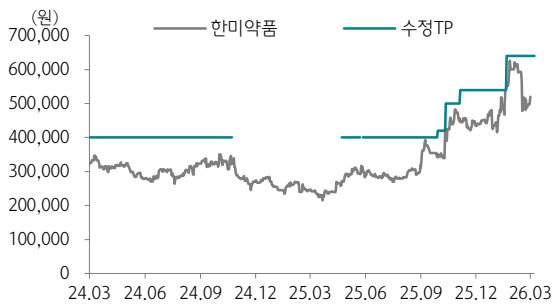
알테오젠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22	BUY	580,000		
25.11.20	BUY	640,000	-26.04%	-15.31%
25.7.8	BUY	550,000	-14.86%	1.64%
25.5.13	BUY	440,000	-16.59%	-5.23%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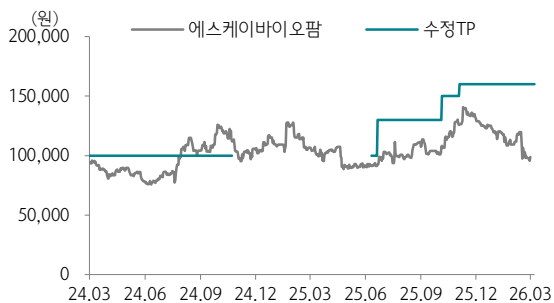
한미약품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2.6	BUY	640,000		
25.11.21	BUY	540,000	-15.90%	0.19%
25.10.28	BUY	500,000	-10.58%	-3.40%
25.10.15	BUY	420,000	-15.30%	1.90%
25.6.13	BUY	400,000	-24.33%	-1.75%
25.6.9	Not Rated	-	-	-
25.5.9	BUY	400,000	-26.51%	-22.13%
25.4.16	담당자 변경	-	-	-
24.1.10	BUY	400,000	-26.21%	-11.75%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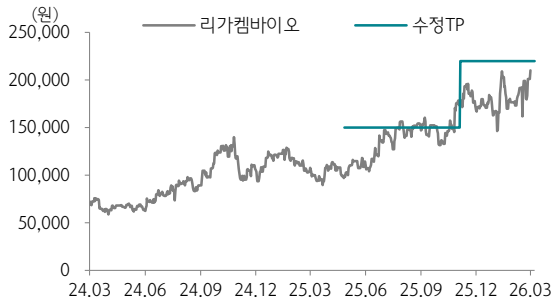
에스케이바이오팜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1.20	BUY	160,000		
25.10.22	BUY	150,000	-20.38%	-13.13%
25.7.7	BUY	130,000	-21.21%	-12.69%
25.6.27	BUY	100,000	-7.70%	-6.30%
25.4.16	담당자 변경	-	-	-
23.11.10	BUY	100,000	-2.17%	27.90%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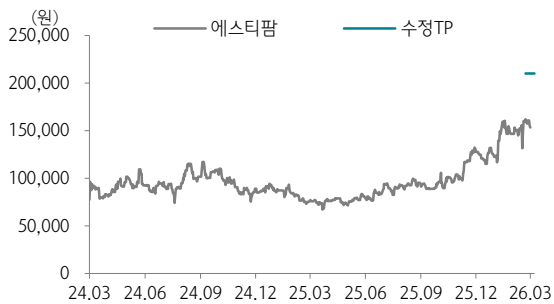
리가캠바이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1.21	BUY	220,000		
25.5.13	BUY	150,000	-8.77%	19.00%
23.5.25	Not Rated	-	-	-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에스티팜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3.9	BUY	210,000		
25.7.18	Not Rated	-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3월 18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선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선아)는 2026년 3월 18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 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6.76%	3.24%	0.00%	100%

* 기준일: 2026년 03월 15일